한의학 시리즈 2. 개항이후 한의학 수난사

서구지향성, 한의학 고난의 뿌리

백 상 룡
〈한의학 박사 3기〉

19세기의 세계역사는 무력에 의한 굴절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서구열강의 무력이 세계 전역을 휩쓸면서 당시의 모든 가치관을 변질시켜 버렸다. 약소국가의 모든 문화나 사상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고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였으며, 힘있는 자의 것이 곧 진리라는 의식이 팽배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통치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던 일제는 자기들의 문화와 사상, 제도를 이입시키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사상과 문화, 제도 등을 봉건시대의 유물로 격하시키는데 총력을 다하였다.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제도나 교육, 문화활동의 전반에 뿌리깊이 박혀 있다.

현재 한의학계가 겪고 있는 고난도 여기에 한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의학을 수입하여 이를 연구, 개발, 동의(東醫—중국의학에 대비하여 이름한 것임. 동의보감의 '동의'의 뜻)로 승화시켰던 한의학계는 일제의 한반도 진출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국가제도에서 한의사제도의 폐지이다. 1899년 칙령 제 7호인 의학교 관제를 공포하여 관립 의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16과목 전체를 서양의학과목으로 배정하였으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1906년에 이또오 히로부미는 대한병원을 개설하고 일본인 의사를 청빙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1907년 칙령 제 9호를 발휘하여 서양의학 단일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한의진료는 관제에서 폐기되었다.

시종겸 전의 장용준, 내부위생국장 홍철보 등은 의학교 관제공포 5년후인 1904년 고종께 진언하여 한의학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설립을 청원, 1905년에 동제의학교가 설립되었다. 동제의학교가 설립된 후 1년정도 지나 도지부(度支部)로부터 경비의 지출이 끊기자 고종은 사재를 털어 이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자 동제의학교는 개교 3년만에 폐교되었다.

이에 한의계는 1909년 8월에 김영훈 등을 중심으로 전국 한의계를 규합하는 단체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그 해 10월에 대한의사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동의학(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동서의학강습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겪고, 단명하게 된다.

일제는 경술국치이후 본격적으로 한의학의 완전한 말살정책을 시도하니, 의생(醫生)규칙의 공포이다. 의생규칙의 공포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한의사의 직위를 격하시켜 단순히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고, 둘째는 한의학에 종사하는 후진의 배출을 막아 학문의 영속성을 차단한 것이다. 그리고 양의(洋醫)의 수가 증가하자 1944년에는 의생규칙마저 폐기하여 한의학을 제도권에서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은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한의학에 깃들어 있는 민족의 자존성을 없애자는 것이오, 또 하나는 일본의 의료제도와 일치시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다행히 그 다음해에 해방을 맞아 한의계는 복원운동을 통하여 조선의사회를 결성하고 한의학 발전에 기치를 올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이 공포되어, 미군정법령 제64호에 의해 보건후생부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보건부에는 의무과, 보건과 등과 더불어 한방과도 설립되어 한의학의 발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49년 정부조직 개편 때에 한방과가 폐지되어 다시 이 나라의 의료정책은 양방 일변도로 재편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결과이다. 계속하여 보건부는 한의사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양의(洋醫)단행안을 추진하였으나 한의계의 노력과 국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에 양의계는 한의사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한의사의 지위를 격하시켜 사(師)를 사(士)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국회에서 저지당하였다. 당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부의 장관, 차관, 과장 등이 모두 양의인 점을 감안한다면 천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45년에 조선의사회는 총회를 열어 한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결의하여 1948년에 동양의학대학을 설립하였으며, 동양의학대학은 1964년에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면서 동양의과대학으로 개칭하였는데, 이것이 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신이다.

이후로도 5.16 군사혁명을 거치면서 한의학(韓醫學)과 한의사(韓醫師) 제도는 여러번의 존폐위기를 겪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국민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일부 제도 편위주의와 서구지향적 의식에 물든 위정자들이 과거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상기의 내용은 신중완씨의 '일제침략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한방의료제도 변천사에 관한 연구—대한원전의사학회지 제2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한 것임)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수난시작

과거구태 버리고 자존성 가져야

글 싣 는 순 서

1. 한의학의 본질
2. 개항이후 한의학 수난사
3. 한의학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세시봉

김동욱 논설부기자

검찰 표적수사 어디까지인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생활에 있어서 대리출석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학의 지성인이라면 앞으로 대리출석 같은 행위는 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여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이 대리출석인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 사이에서 관용화되었다고 할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대리출석이 어려울 듯 싶다. 왜냐하면 대리출석으로 인해 담당교수가 검찰소환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게 때문이다.

검찰은 시위와 관련해 학기중에 구속된 학생들이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출석을 인정해 학점을 준 대학교수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전남대 교수 3명이 구속학생들에 대해 출석점검을 소홀히 하여 학점을 준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나타나 징계위에 회부되자, 검찰은 이 교수들을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했다. 또한 전남대 외에 조선대에서도 이와같은 사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총련사태때 구속된 학생들에 대해 각 기업들은 이들의 채용에 있어서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검찰까지 운동권 학생의 학점까지 차등을 두려하고 있다. 이제 구속의 경력이 있는 대학 운동권 학생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란 말인가?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출석점검을 소홀히 하여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이들을 소환조사 한다면 우리나라 대학교수들 중 소환되지 않는 교수들은 몇이나 될까 궁금하기도 하다.

확실한 범죄혐의가 나타난 죄수라 해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만 받으면 된것이지 2차 3차에 걸쳐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범죄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애초에 특별한 의도가 깔린 표적수사였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범죄혐의를 달면서도 모든 대학에 대해 수사를 받지 않는것은 법률에 의한 법 집행이 아닌 자의에 의한 법 집행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교육부 감사에서 교수들이 말했듯이 2백명이 넘는 학생들을 일일히 점검하기는 어렵고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한 '단순실수'여서 이것이 나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검찰 공안부의 수사권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정 문제가 된다면 대학 내 자체규율에 따라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이다. 이는 명백한 검찰의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

잡초를 밟아 못자라게 한 후 그 위에 마음껏 농사를 지으려는 농부가 이미 밟아 놓은 잡초가 자꾸 마음에 걸려 두 세번 더 발(?)을 대어 더이상 못 일어나게 해야만 풍년의 꿈을 꿀 수 있는가 보다.

학술단신

'동양학연구' 제2집 출간

문리대 사학과의 「경희 동양학 연구회」(회장 신용철 교수)는 지난 8월말 학술잡지이너 『동양학연구』 제2집을 출간했다.

실린 논문들은 중국고대의 경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근현대사에 관한 내용들이다. 즉, 1850년워 태평천국운동과 1900년의 의화단사변 및 1919년 5·4운동 당시 진독수의 마르크스주의 수용에 관한 고찰 등으로 흥미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현대중국의 사회사연구 동향이나 금년 여름 학술회의 참가보고 등은 현대중국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다. 끝에 실린 한·중문화 협정 전문은 비록 이미 2년전의 역사적 문건이지만, 요란한 정치·경제적 대사건만을 좋아하는 우리의 사회풍조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획기적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의 도움을 독자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학술잡지를 출간한 경희동양학 연구회는 우리 학교에 정식으로 부설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규모가 큰 학술적 모임은 아니다. 1984년 10월 사학과 내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 학회의 취지에 동조하는 일부 학부생들을 회원으로 창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창립 이래 해마다 「경희동양학 연구회보」를 발간하여 95년까지 제10호를 냈는데 내용은 동양학분야의 연구동향이나 문제점 및 교수의 강의계획서 또는 학과의 활동상황, 연구소식, 신간서적 등이다.

특히 이미 여러 권의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한 이 연구회는 현재 여러 대학에서 동양학의 교양교재로서 채택되고 있는 『동양의 역사와 문화』(탐구방) 및 『중국사학사개론』(새한사) 등이나 『현대 중국정치상사』(탐구당), 『중국인민해방군』(탐구당)등의 저서나 번역서를 출간하는데 산파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직까지 외부의 원조에 의지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경희동양학 연구회의 활동은 우리대학이 학문하는 분위기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학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현대사에 관심을 가져 우리의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신용철 교수의 말은 바로 이 잡지와 연구회가 지향하는 학술적 목표이기도 하다.

나를 바꾼 이책

역사란 무엇인가?

소신있는 인생의 버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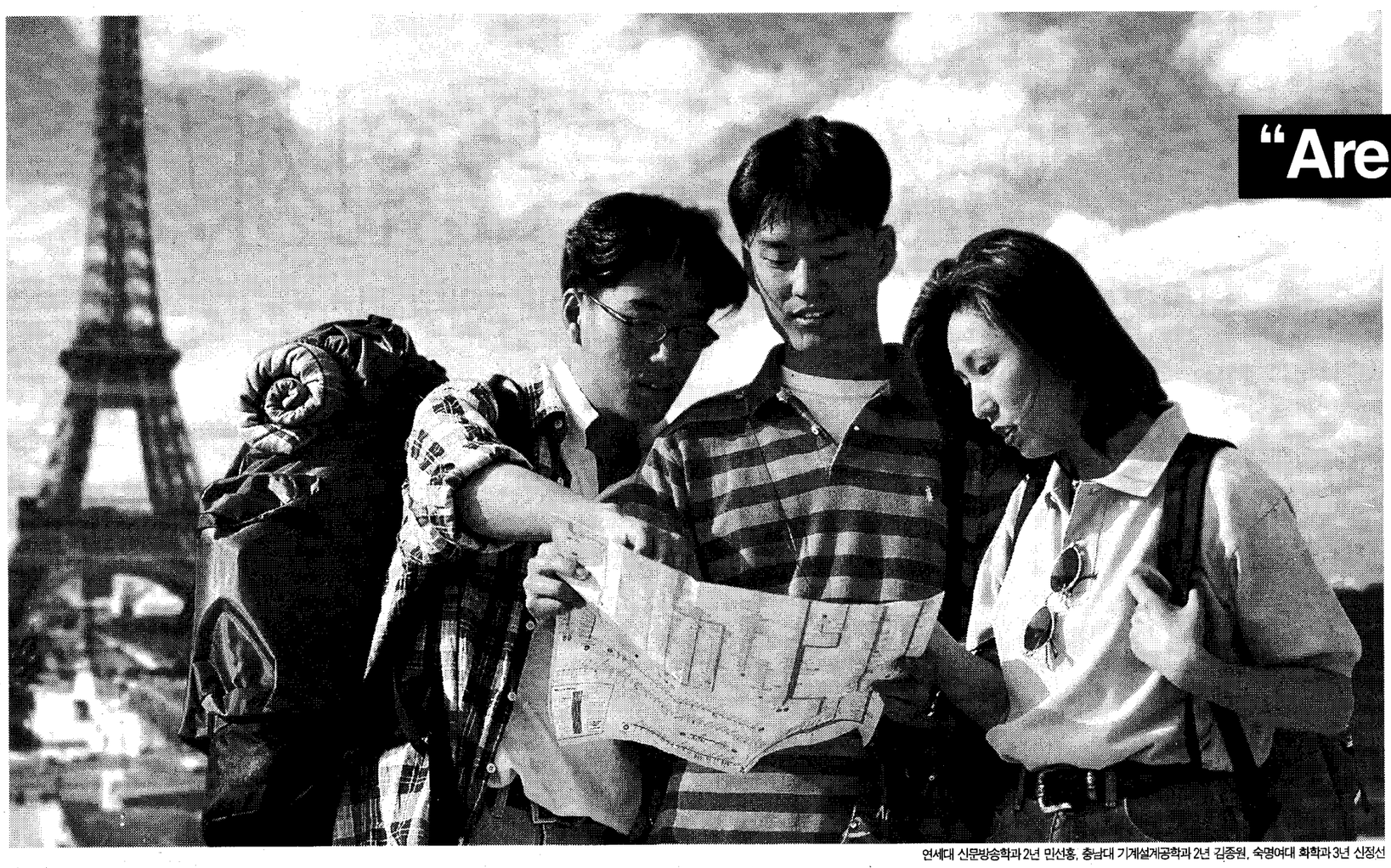
차 경 애
〈문리대 사학과 교수〉

각 대학이 학부제 실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이즈음은 유난히 나로 하여금 대학 1, 2학년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지금부터 20년전, 과별 지원이 아닌 소위 계열별 지원이라는 첫 시험 케이스로 나는 ○○대학교 문리대 인문사회계열에 합격하여 인문사회계 1학년 8반 학생이 되었다. 계열별 입학이란 1, 2학년동안 다양한 교양과목을 접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취향을 발견한 후, 3학년때에 전공을 택하는 제도였다. 당시 우리반 지도교수는 50대의 노처녀였지만, 아주 정열적이셔서 우리반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셨다. 다양한 특강을 마련해 주셨고, 멋진 남학생을 골라 와서 미팅도 주선해 주셨으며, 2박 3일간의 합숙생활도 자주 마련해 주셨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위 학구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나를 포함한 7명이 E.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는 강독회를 만들었다. 모임을 주선한 친구의 이야기인 즉 대학 1학년생이면 적어도 "역사란 무엇인가" 정도의 책은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독회에서 토론을 지도해줄 선생이 필요하다며 다른 대학 사학과 2학년 학생을 지도선생으로 모셔왔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 책 속에는 고등학교시절 역사시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역사' 그 자체를 논하는 철학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이며, 역사가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역사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 주관성과 객관성, 필연과 우연 등의 문제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역사와 과학과의 관계, 역사와 도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등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닌 역사철학책이었던 것이다. 중고교시절 유난히 역사과목을 좋아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에 늘 관심이 있던 나는 이 어려운 역사철학서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한 문단 한 문단을 정독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강독회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며 토론해 나갔다.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가 사실을 선택해서 정리하여 역사적 사실로 만들므로써 시작되며,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카아의 말은 나로 하여금 역사가로서 역사를 서술해 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이 책을 통해 역사학이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을 추구하기 위해 역사학자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 나는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회학 분야의 강좌를 집중적으로 들었고 나의 학문의 자세는 늘 역사철학적 입장에서 깨어 있고자 했다. 3학년이 되어 전공을 택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취직을 위해 영문과로 몰렸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사학과를 택할 수 있었다. 더구나 함께 강독모임을 이끌어 온 친구들 모두가 학점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취직을 염두에 둔 영문과 지원에 휩쓸리지 않고 각자의 개성에 맞게 철학, 국문학, 기독교학 등을 전공하고 지금은 7명중 5명이 대학강단에 서 있다.

이 가을, 학부제 실시로 인한 강좌개편으로, 그리고 교수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로 주위에서 나를 옭아매려 함을 느낄 때면 나는 카아를 생각하고 "역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래, 학생이 무슨 기준으로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교수를 평가하고자 하든 개의치 말고 내 자신에 그리고 사회에 떳떳한 역사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처음엔 나도 정말 화가 치밀었다.
내가 어딜봐서 일본사람같단 말인가
그런데 한 달 배낭여행 길에서 '한국사람이냐'고
처음에 묻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Are you Japanese?"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문화유적이라고 돌아본 곳마다 잘 정리되어
적혀있는 일본어설명을 볼 때의 착잡함,
상품설명서에 당당히 적힌 일본어안내.
아 국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억울하면 힘을 키워라!'
나라밖을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더니
나도 모르게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후배들이 배낭여행에 나설 때 쯤엔
'Are you Korean?' 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
돌아오면서 배낭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힘있는 조국을 위하여 —
한국의 힘, 유공

• 1962년 최초의 정유회사로 탄생, 1964년 석유류제품 국내 첫 생산
•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로서 하루 61만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
• 우리나라를 일약 산유국의 대열에 서게한 1986년 북예멘 마리브광구 유전개발 성공
• 국내최초의 방향족제조시설과 나프타분해센타를 건설하여 현대산업의 기초가 되는 석유화학분야 개척
• 자동차 공해방지 연구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로 평가받는 경유차량 매연제거기술 독자 개발
• 193명의 환경전문가, 1조원의 환경투자를 통해 국내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체제구축
• 찌꺼기 없는 휘발유 유공엔크린/21C 윤활유 ZIC/ 힘 좋은 경유 파워디젤

조국을 먼저 일류로 만들기 위한 유공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힘— 주식회사 유공

SUNKYONG 鮮京그룹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2년 민선홍, 충남대 기계설계공학과 2년 김종원, 숙명여대 화학과 3년 신정선

★기획제작 : 유공홍보실담당 황인섭/제일기획 제작1팀 CD이웅찬 AE문제인·최규인 CW이카남 ·이상은 GD김승연 ·홍오한